

# 니체 해석의 세 가지 방향

박찬국\*\*

포스트모던적 좌파의 해석,  
하이데거의 해석, 덕 윤리로 보는 해석\*

**초록** 본 연구는 니체에 대해서는 극좌적인 입장에서 극우적인 입장에 이르기까지, 남성중심주의에서 여성중심주의에 이르기까지, 니체에 대해서 온갖 해석이 난무하며 심지어 서로 모순되는 해석들까지도 존재할 정도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한다. 그러나 나는 니체를 창의적으로 해석하더라도 그러한 해석은 적어도 니체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될 수 있을 정도로 니체 냄새가 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니체와 마찬가지로 기독교가 지배하게 된 이후의 서양철학에서는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지배해 왔다고 본다. 그것은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동등함을 주장하는 가치관이다. 이에 반해 니체는 모든 인간은 존엄하고 동등한 것이 아니라 인간들 사이에는 등급이 있고 이러한 등급에 따른 위계질서가 지배해야 한다고 본다. 다시 말해 고귀한 인간과 저열한 인간이 있으며, 고귀한 인간이 사회를 지배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니체는 인간의 본질은 힘에의 의지이기에 힘을 둘러싼 갈등과 투쟁은 인간사회에서 사라질 수 없다고 본다. 이 두 가지 기본사상, 즉 인간들 사이의 등급에 대한 인정과 인간의 본질을 힘에의 의지로 보는 것을 중시하지 않는 해석들은 니체의 사상에서 니체 특유의 성격을 제거하는 해석들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나는 여기서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니체 해석의 세 가지 방향 중 포스트모던적 좌파의 해석, 하이데거의 해석, 니체를 덕 윤리가로 보는 해석을 검토했다. 나는 포스트모던적 좌파와 하이데거의 해석이 갖는 문제점을 드러내면서 니체를 덕 윤리가로 보는 해석이 니체에 대한 가장 적합한 해석이라고 보았다.

**주제어** 니체, 포스트모던적 좌파, 하이데거, 덕 윤리

\* 본 연구는 2024년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인문학 강연-집필 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았다.

\*\* 서울대학교 철학과 교수

## 1. 들어가면서

얀 레만(Jan Rehmann)은 『포스트모던적 좌파의 니체주의: 들뢰즈와 푸코의 니체 수용에 대한 해체적 분석』<sup>1</sup>이란 책의 서문을 1980년에 지오르다나(Giordana)라는 감독이 연출한 *Maledetti Vi Amerò*(젠장, 널 사랑할 거야)라는 영화의 한 장면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다. 이 장면에서는 좌익테러리즘과 여피(Yuppi)<sup>2</sup> 문화 사이에서 방황하던 청년인 리카르도가 자살 직전에 포스트모던적 좌파의 새로운 가치관을 노트에 쓴다.

에로틱은 좌파적이고 포르노는 우파적이다. [섹스에서] 전희(前戲)는 좌파적인 반면에, 삽입은 우파적이다. 이성애는 우파적이지만, 동성애는 [사회적 금기의] 위반(違反)이라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좌파적이다. 헤시시(Haschisch)는 좌파적이지만, 암페타민, 코카인 그리고 헤로인은 우파적이다. 니체는 새롭게 평가되었고 이제 그는 좌파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우파다.<sup>3</sup>

“니체는 좌파고 마르크스는 우파다.” 이 주장은 얼핏 기상천외하게 들리지만, 푸코 바람이 지나가자 들뢰즈 바람이 불었던 우리나라에서도 생소한 주장만은 아니다. 니체는 한때 게오르그 루카치와 같은 마르크스주의자들에 의해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적이자 서양 제국주의와 파시즘의 이데올로기로 폄하되었다. 그 니체가 이제는 들뢰즈와 푸코를 비롯한 포스트모던 좌파들에 의해서 관료주의에 대한 저항을 주창하면서 차이와 다원성의

1 Jan Rehmann (2004), *Postmoderner Links-Nietzscheanismus - Deleuze & Foucault - Eine Dekonstruktion*, Argument Verlag, p. 7.

2 Yuppie는 Young Urban Professional의 준말로 1980년대 미국과 유럽의 대도시에서 높은 소득과 소비를 추구하던 젊은이들을 가리킨다.

3 [ ]은 필자에 의한 삽입주임.

존중을 설파하는 사상가로 추앙받고 있다.

사실 니체에 대해서는 과연 올바른 니체 해석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는가가 의문스러운 정도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한다. 극좌적인 입장에서 극 우적인 입장에 이르기까지, 남성중심주의에서 여성중심주의에 이르기까지, 니체에 대해서 온갖 해석이 난무하며 심지어는 서로 모순되는 해석들까지도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서양철학의 역사상 니체만큼 해석의 스펙트럼이 넓었던 사상가는 없었을 것이다.

푸코와 같은 사람은 심지어 ‘니체를 왜곡하고 확대하고 비명을 지르게 하는 것이 니체에 대한 존중을 표현하는 유일한 방식’이라고 주장한다. 이와 함께 그는 자신의 니체 해석은 니체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아니라 니체를 창조적으로 원용하는 것을 목표로한다고 노골적으로 말한다. 따라서 푸코식의 니체 해석에 대해서는 그것이 니체의 텍스트에 비추어 얼마나 타당한 가라는 식의 물음은 제기될 수 없다.

그러나 나는 니체를 창의적으로 원용하더라도 허용될 수 있는 원용이 있고 그렇지 않은 원용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니체를 창의적으로 원용하더라도 기독교가 말하는 천국이나 마르크스가 말하는 공산주의에 대한 소망을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원용할 수는 없다. 굳이 기독교의 천국 외에 마르크스의 공산주의를 거론한 것은 니체는 공산주의와 같은 유토피아는 기독교가 말하는 천국을 지상에 옮겨놓은 것일 뿐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니체가 마르크스를 비판하는 것은 포스트모던 좌파들이 주장하듯이 마르크스가 다원성이나 차이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모든 인간이 평등하고 온갖 고통과 고난이 사라진 기독교적인 천국 이념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마르크스는 기독교를 부정하더라도 사실은 기독교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다.

나는 니체를 창의적으로 해석하더라도 그러한 해석은 적어도 니체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될 수 있을 정도로 니체 냄새가 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서양에서 기독교가 지배하게 된 이후의 서양의 다른 사상가들과 구별되는 니체 특유의 문제의식과 사상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게 하는 해석이어야 한다.

나는 니체와 마찬가지로 기독교가 지배하게 된 이후의 서양철학에서는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지배해 왔다고 본다. 이러한 가치관은 아우구스티누스에서 하이데거와 들뢰즈, 푸코, 레비나스까지 지배하는 가치관이다. 그것은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동등함을 주장하며, 투쟁과 경쟁이 아니라 화해와 사랑이 지배하는 세계를 지향한다. 니체는 이러한 가치관에 대해 반기를 든 근현대의 유일한 사상가다.

근현대의 많은 철학이 자신의 철학이 갖는 혁명적인 의의를 강조했다. 마르크스는 자기 이전의 서양철학을 지배계급을 위한 철학으로서, 하이데거는 자기 이전의 철학을 존재 망각에 빠진 철학으로서, 레비나스는 자기 이전의 철학을 타자 망각에 빠진 것으로 비판하면서 자신들 철학의 독자성을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철학들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의 그늘에 있다는 것을 부정하기는 힘들다.

이러한 사상가들에 반해 니체는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철저히 부정했다. 니체는 모든 인간은 존엄하고 동등한 것이 아니라 인간들 사이에는 등급이 있고 이러한 등급에 따른 위계질서가 지배해야 한다고 본다. 다시 말해 고귀한 인간과 저열한 인간이 있으며, 고귀한 인간이 사회를 지배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니체는 인간의 본질은 힘에의 의지이기에 힘을 둘러싼 갈등과 투쟁은 인간사회에서 사라질 수 없다고 본다.

이 두 가지 기본사상, 즉 인간들 사이의 등급에 대한 인정과 인간의 본질을 힘에의 의지로 보는 것을 중시하지 않는 해석들은 니체의 사상에서 니체 특유의 성격을 제거하는 해석들이다. 그러한 해석들은 오늘날 지배하는 민주주의적인 가치관, 즉 니체가 기독교적인 가치관의 세속적 연장이라고 보았던 가치관에 니체를 영합하게 만드는 해석이다. 이러한 해석들은 사실은 니체의 이름으로 자신의 사상을 포장하더라도 사실은 니체가 아니라

자신의 사상을 이야기할 뿐이다.

따라서 푸코가 말하듯 니체를 왜곡하고 확대하고 비명을 지르게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니체를 창의적으로 해석하더라도, 적어도 니체의 냄새가 풍길 수 있도록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여기서 니체에 대한 모든 해석 방향을 다 살펴볼 수는 없다. 여기서서는 다만 최근의 니체 연구에서 각광을 받는 세 가지 해석 방향만 살펴 보면서 그중 어떤 것이 과연 니체의 사상에 대한 적절한 해석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를 검토할 것이다. 이 세 가지 해석 방향이란 포스트모던적 좌파의 해석, 하이데거의 해석, 니체를 덕 윤리가로 보는 해석이다.

## 2. 포스트모던적 좌파의 해석: 다원성과 차이에 대한 존중을 설파하는 사상가로서의 니체<sup>4</sup>

포스트모던적 좌파의 해석에 따르면 니체는 ‘너 자신이 되라’고 외치면서 다원성과 차이의 존중을 설파하는 철학자다. 이러한 해석의 대표적인 주창자는 들뢰즈다. 들뢰즈야말로 후기 구조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에 경도된 지식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니체 해석을 제시했다.

들뢰즈식의 니체 해석을 극단으로까지 밀고 나가면서 니체를 해석한 대표적인 니체 연구자가 네하마스다. 네하마스는 그의 유명한 책 『니체: 문학으로서의 삶』(*Nietzsche: Life as Literature*)<sup>5</sup>에서 니체가 일관성 있는 개성적인 삶을 중시했다고 주장한다. 니체는 만일 어떤 작품에서 한 인물이 아무리

4 이 부분은 본인의 논문 「들뢰즈와 푸코의 니체 수용에 대한 비판적인 분석」(『인문논총』 인문학연구원, 2005) 제54집과 본인의 책 『니체를 읽는다: 막스 쉐러에서 들뢰즈까지』(아카넷, 2015)의 일부 내용(pp. 187-201)을 참조했다.

5 이 책은 김종갑에 의해 한국어로도 번역되었다. 알렉산더 네하마스(2013), 『문학으로서의 삶』, 연암서가.

비도덕적인 인물이라도 독자적인 스타일로 일관되게 사는 자로 그려진다면 그 인물은 비난받을 수 없다고 보았다는 것이다.

도스토옙스키의 작품 『지하생활자의 수기』의 화자는 입에 담기도 싫을 정도로 혐오스러운 인물이지만, 작중인물로서는 완벽하다. 또한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에 나오는 술주정뱅이이자 패륜아인 드미트리 카라마조프나 천진무구한 천사 같은 인간인 알료샤가 나온다. 네하마스에 따르면, 이들 각각이 독특하면서도 통일적인 삶의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니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인물에 해당된다.

네하마스의 니체 해석은 실로 신선하고 독창적이지만, 상당히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진다. 니체는 아무리 개성적이고 일관성 있는 것이라도 모든 종류의 삶의 스타일을 긍정하지는 않는다. 니체는 우리에게 고귀한 유형의 삶의 스타일을 구현할 것을 촉구한다. 니체가 이러한 스타일을 구현한 예들로 꼽는 사람들은 카이사르와 나폴레옹 그리고 괴테 정도다. 이러한 고귀한 스타일은 네하마스가 말하는 것처럼 단순히 하나의 통일적이고 독특한 양식과 동일시될 수는 없다. 이 점에서 니체의 취향은 상당히 엄격하고 까다롭다고 할 수 있다. 더 분명히 말하자면 니체는 드미트리 카라마조프든 알료샤든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인간이 아니라고 볼 것이다.

니체를 다원성과 차이를 중시한 사상가로 보는 포스트모던 좌파의 해석은 니체 철학이 갖는 귀족주의적인 성격을 무시하고 있다. 니체가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그리고 무정부주의를 통렬하게 비판하면서 초인들에 의한 귀족주의적인 지배를 주창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니체는 『안티크리스트』에서 이상적인 사회형태는 다음과 같은 세 계층, 즉 정치를 전담하는 정신적으로 탁월한 소수와 육체와 기질이 강하여 방위를 전담하는 군인 그리고 경제활동을 담당하는 다수의 평균인으로 구성된다고 주장하고 있다.<sup>6</sup> 니체가 생각하는 이러한 이상적인 사회가 플라톤에 대한 니체

— [www.kci.go.kr](http://www.kci.go.kr)

6 니체(2013), 박찬국 옮김, 『안티크리스트』 57절, 아카넷, p. 144 참조.

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플라톤의 이상 국가와 극히 유사하다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엘리트주의적이고 반민주주의적인 성격은 초기부터 광기에 빠지기 직전까지 니체의 사유 도정 전체를 규정하는 것이다.

다원성과 차이를 존중하는 들뢰즈식의 니체 해석을 받아들이는 것은 포스트모던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다. 포스트모더니즘에 비판적인 하버마스도 니체에 대한 들뢰즈의 해석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러나 하버마스는 들뢰즈와 마찬가지로 니체를 ‘모든 규범에 대한’ 무정부주의적인 반항아로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파악과 함께 하버마스는 니체에서 호르크하이머와 아도르노의 비판이론 그리고 포스트모던으로 이어지는 연속성을 상정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니체는 무정부주의에 대해서도 신랄하게 비판할 뿐 아니라 모든 규범을 파괴하기보다는 새로운 규범을 제시하려고 한다.

푸코의 해석 역시 들뢰즈의 것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푸코는 자신을 권력과 주체에 대한 급진적인 비판가로서 이해하는 반면에, 니체는 고귀한 자들에 의한 권력과 지배를 긍정한다. 푸코 역시 들뢰즈와 마찬가지로 니체 사상의 엘리트주의적인 성격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들뢰즈와 푸코는 인간들 사이의 등급 대신에 다양성과 차이에 대한 존중이 지배하는 사회를 지향하는 것이다.

### 3. 하이데거의 니체 해석: 니힐리즘의 극복이 아니라 완성으로서의 니체 철학<sup>7</sup>

하이데거는 흔히 비합리주의적인 시인 철학자로 간주되었던 니체를 서양의 위대한 형이상학자 중 하나로 해석함으로써 니체 연구에 새바람을 불

7 본인은 『니체와 하이데거』(그린비, 2016)에서 니체와 하이데거를 상세하게 비교하고 하이데거의 니체 해석을 비판한 바 있다.

러일으켰다. 하이데거의 니체 해석은 니체를 연구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대결해야 할 정도로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하이데거의 니체 해석은 하이데거의 사상이 변화함에 따라서 큰 변화를 보인다. 초기의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에서 니체와 자신의 사상 사이의 유사성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사상을 니체가 말하려고 한 것을 보다 사대에 부합되게 표현한 것으로 본다.<sup>8</sup> 이에 반해 후기의 하이데거는 니체에 대해서 철저하게 거리를 취한다. 후기 하이데거에 따르면, 니체는 현대 기술문명을 철학적으로 정초하는 반면에, 자신은 현대 기술문명으로 귀착되는 서양 형이상학의 역사 전체를 넘어서는 새로운 시원(始元: Anfang)을 철학적으로 정초한다. 여기서는 후기 하이데거의 니체 해석이 하이데거가 궁극적으로 도달한 입장이기 때문에 후기 하이데거의 니체 해석만 살펴볼 것이다.

### 3.1. 근대형이상학과 니힐리즘의 정점으로서의 니체 철학

하이데거에 따르면, 니체의 사상은 현대 기술문명을 정초하는 사상이다. 하이데거는 현대 기술문명의 본질을 힘에의 의지 내지 지배에의 의지로 보고 있다. 현대과학은 존재자들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려는 것이 아니라 존재자들에 대한 지배를 목표로 한다. 현대의 기술 역시 존재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고유한 본질을 드러내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존재자들을 자기 뜻대로 조종하고 통제하고자 한다. 이런 의미에서 현대의 과학과 기술에는 본질적으로 인간이 자신을 강화하려는 힘에의 의지가 지배하고 있다. 이러한 힘에의 의지는 모든 것이 생성 소멸하는 세계 안에서 인간이 자신의 존재를 견고하고 지속적으로 존립하는 것으로 확보하려는 의지다.

8 예를 들어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에서 현존재의 역사성을 분석하면서 자신의 분석이 『반시대적 고찰』 「역사학의 공과(功過)」에서 니체가 행하고 있는, 역사에 대한 세 가지 접근방식에 관한 고찰을 통일적으로 파악한 것으로 보고 있다. M. Heidegger(1972), *Sein und Zeit*, Tübingen 12판, 396쪽 참조.

하이데거에 의하면 현대를 지배하는 것이 힘에의 의지라는 사실은 과학과 기술 이외에 현대의 전형적인 특징 중 하나로 볼 수 있는 세계관들 사이의 투쟁에서도 나타난다. 나치즘이나 마르크스주의와 같은 세계관들은 변화무상한 세계를 자신의 고정된 이론적 체계 안에 짜맞춤으로써 자신의 삶에 확고한 의미와 방향을 부여하려는 현대인들의 몸부림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런데 세계관들은 세계 전체를 자신의 체계 안으로 편입하여 자기 삶에 확실한 안전을 보장하려고 하는 것이기에, 다른 세계관이 자신 곁에 대등한 것으로 존재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 바로 이 때문에 제2차 세계대전에서 보는 바와 같은 세계관들의 투쟁이 발생하게 된다. 어떤 특정한 세계관을 신봉하는 인간들은 자신의 세계관이 승리했을 때 자신의 존재도 그만큼 안전하고 공고한 것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세계관들 사이의 투쟁이란 그것들이 내세우는 것처럼 진리나 민족 혹은 인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표방하는 자들의 힘에의 의지를 강화하기 위한 투쟁에 불과하다.

이런 의미에서 하이데거는 니체의 영원회귀 사상도 단순히 지배를 위한 지배를 목표로 하는 현대인들의 존재 양상을 그리는 것으로 본다. 다시 말해 영원회귀 사상은 현대인들이 아무런 의미도 목표도 없이 존재자들을 지배하고 남용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사태를 가리킨다는 것이다.

아울러 하이데거는 니체가 말하는 초인도 히틀러나 스탈린과 같은 기술문명의 지도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지도자들은 기술문명을 주도하는 자들로 자처하지만 사실은 기술문명을 근거에서 규정하고 있는 힘에의 의지의 노예에 불과하다. 이들은 자연과 사물들로부터 에너지를 최대한 뽑아내도록 다른 인간들을 조직하고 관리하며 독려한다. 그러나 그들이야말로 자신들이 통제하지 못하는 힘에의 의지, 즉 지배에의 광기에 의해서 내몰려지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하이데거는 기술문명의 진정한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통제에서 벗어난 채 모든 인간을 근거에서 몰아대는 지배에의 광기라고 본다.

현대인은 자신을 힘에의 의지의 주체로 간주하지만, 사실은 힘에의 의지의 수단에 불과하다. 현대 기술사회에서는 인간 이외의 존재자들만이 인간을 위한 에너지를 내놓도록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마저도 존재자들에 대한 지배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다 발휘하도록 강요당하고 있다. 따라서 현대 기술문명의 본질은 힘에의 의지가 인간을 이용하여 자신을 끊임없이 강화하고 있다는 데 있다. 그리고 이러한 힘에의 의지는 인간을 비롯한 모든 존재자를 소모한다는 점에서, 현대는 궁극적으로는 공허한 무가 지배하는 니힐리즘의 시대다. 니체의 철학은 이러한 기술시대를 정당화한다는 점에서 자신이 주장하는 것처럼 니힐리즘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니힐리즘을 완성한다.

하이데거에 의하면 모든 시대는 그 시대를 근거에서 규정하는 존재관과 진리관을 정립하는 형이상학에 의해서 정초된다. 니체는 인간을 비롯한 모든 존재자의 본질을 힘에의 의지로 보는 존재관과 진리의 본질을 힘에의 의지가 자신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수단으로 보는 진리관을 통해 현대 기술문명을 철학적으로 정초한 사상가다.<sup>9</sup> 니체는 현대 기술문명을 지배하는 것이 과학이나 세계관이 주장하는 것처럼 진리나 인류애나 민족애가 아니라 사실은 힘에의 의지일 뿐이라는 사실을 드러낸 최초의 사상가다. 니체는 과학이든 기술이든 세계관이든 사실은 인간들을 내면에서 몰아대는 힘에의 의지가 자신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립한 수단들로 보는 것이다.

하이데거는 과학과 세계관들을 인간을 위한 도구로 보는 실용주의를 비롯한 현대의 인간 중심적인 사상들 대부분은 니체 사상의 영향력 안에 있다고 본다. 이런 의미에서 니체는 20세기와 21세기에든 이어질 기술문명을 정초한 사상가다. 데카르트가 근대에 대해서 갖는 지위를 니체는 20세기 이후의 현대 기술문명에 대해서 갖는 것이다.

9 M. Heidegger (1978), 전집 7권: *Vorträge und Aufsätze*, Vittorio Klostermann, p. 77 이하 참조.

물론 니체는 자신이 말하는 힘에의 의지는 현대 기술문명과 현대인뿐 아니라 모든 시대와 인간을 비롯한 존재자 전체를 지배하는 본질이라고 주장할 것이며 자신의 철학의 타당성을 하이데거처럼 현대 기술문명에 국한하려는 시도를 거부할 것이다. 그러나 하이데거는 니체 철학의 시대적 제약성을 강조한다. 하이데거에 따르면, 인간이 힘에의 의지의 주체로 나타나고 모든 존재자를 자신의 힘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사고방식은 근대에서야 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그러한 사고방식은 현대 기술문명에서 완성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하이데거에 따르면, 고대 그리스인은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는 존재자들의 고유한 본질을 드러내려고 했을 뿐 그것들에 대한 지배를 추구하지 않았다. 그리고 중세인 역시 세계를 대상화하여 파악하는 것 대신에 신의 계시에 귀를 기울이고 그러한 계시의 빛 안에서 존재자들을 이해하려고 했다. 인간이 힘에의 의지의 주체로 나타나는 것은, 데카르트가 인간을 이성의 힘에만 의지하여 세계를 파악하는 주체로 정립한 이후인 근대에서야 가능하다. 그리고 니체는 이러한 데카르트적인 인간중심주의를 극단으로까지 밀고 나간 것에 불과하다. 이 점에서 하이데거는 니체의 형이상학을 근대형이상학의 완성이자 정점이라고 본다.<sup>10</sup>

### 3.2. 하이데거의 니체 해석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하이데거가 주장하는 것처럼 니체는 근대철학적인 사유도식에 입각하여 사유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니체가 목표하는 것은 근대와 현대 기술문명의 정당화나 완성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물론 하이데거 역시 니체가 근대문명을 극복하고자 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하이데거는 니체의 그러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니체는 근대를

— www.kci.go.kr

10 마르틴 하이데거(2012), 박찬국 옮김, 『니체 II』, 길출판사, p. 175 참조.

완성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나는 니체에게는 분명히 근대적인 사유나 근대문명을 넘어서는 측면이 본질적인 요소로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나는 니체의 초인은 아리스토텔레스가 ‘궁지에 찬 인간’으로 묘사하고 있는 고대 그리스의 이상적인 인물과 유사하다고 생각한다.<sup>11</sup> 나는 니체의 주요 관심사는 근대문명에서 소멸해 가고 있는 이러한 고전적이고 귀족적인 덕성을 갖춘 인간들을 다시 육성하는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이에 반해 하이데거는 니체가 설파하는 초인의 길은 불세비즘이나 파시즘의 이른바 지도자(Führer)들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구현되었다고 본다.

아울러 나는 니체의 영원회귀 사상을 아무런 목표도 의미도 없이 존재자 전체에 대한 지배를 추구하는 현대인들의 존재 상황을 묘사하는 것으로 보는 하이데거의 해석도 수용하기 어렵다. 영원회귀 사상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삶에서 겪은 고난과 불행이 영원히 반복되는 세계라도 사랑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직면하게 하는 사상이다. 그러한 물음 앞에서 영원히 회귀하는 세계를 사랑하는 자는 힘의 고양을 경험하게 되지만, 그렇지 못한 자는 그 사상의 무게에 짓눌려 좌절하고 만다. 이렇게 좌절하는 자는 기독교가 말하는 천국이나 마르크스주의가 말하는 공산주의와 같은 허구에 의지하여 삶을 유지하려 한다.

최근의 니체 해석자 중에서 하이데거의 니체 해석을 니체에 대한 올바른 해석으로 평가한 사람은 돈 돔보우스키(Don Dombowsky)다.<sup>12</sup>

11 아리스토텔레스의 ‘궁지에 찬 인간’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서술에 대해서는 『니코마코스 윤리학』 1123b-5a를 참조.

12 Don Dombowsky (2018), “The Last Metaphysician’: Heidegger on Nietzsche’s Politics”, *The European Legacy*, 23:6, pp. 628-642 참조.

#### 4. 덕 윤리가로서의 니체

니체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는 원래 부유했지만, 자진해서 거지의 삶을 택한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모든 재산을 포기한 대신에 그는 온몸에서 온유함과 자비가 느껴질 정도로 크나큰 마음의 평화와 충만함을 얻었다. 그는 재물에 대한 탐욕에서 벗어났을 때 찾아오는 이러한 마음의 평화와 충만함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하려 했다. 그러나 그는 곧 가난한 사람들이 자신의 가르침에 아무런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가난한 사람들도 부자들 못지않게 큰 부를 갈망하고 있었다. 다만 이들은 솔직하게 자신들도 부자가 되고 싶다고 말하지 않았을 뿐이다. 그들은 부자들은 자신들을 착취해서 부자가 된 악한 자들이라고 비난하면서, 자신들이야말로 아무도 착취하지 않는 선하고 정의로운 자라는 긍지를 품고 있었다. 그러나 자진해서 거지가 된 자는 그들의 정의감과 의분 그리고 긍지 이면에서 부자들에 대한 원한과 시기 그리고 부러움과 열패감을 보였다.

자진해서 거지가 된 자는 가난한 자들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한없는 탐욕, 쓰디쓴 시샘, 분노로 이끌거리는 복수심, 천민의 긍지, 이런 것들을 나는 분명하게 목격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진리가 아니다.”<sup>13</sup>

그러나 자진해서 거지가 된 자는 가난한 자들뿐 아니라 부자들에 대해서도 구토를 느낀다.

13 니체(2000), 정동호 옮김,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책세상, p. 434(번역을 약간 수정했음).

“차디찬 눈길과 의기양양한 심보로 온갖 허접쓰레기로부터 자신의 이득을 챙기는 자, 부에 매여 있는 자, 하늘을 향해 악취를 내뿜는 천민에 대한 역겨움이 아닌가?

[...] 이들 금으로 번지르르하게 곁칠을 한 천민들에 대한 역겨움이 아닌가?”<sup>14</sup>

‘도금되고 위장된 천민들’이란 부자들은 화려하게 자신들을 장식하고 있어도 내면은 천민이라는 의미다. 자진해서 거지가 된 자는 ‘위에도 천민! 아래도 천민!’이라고 부르짖는다.

위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니체가 지향하는 초인이 어떤 인간인지를 추론할 수 있다. 니체가 말하는 초인은 천민으로서의 인간을 넘어선 인간이다. 천민들의 특성은 부자들의 경우, ‘차가운 눈과 탐욕스러운 마음’이란 구절에서 볼 수 있듯이 ‘타인들을 배려할 줄 모르는 냉혹함과 탐욕’이다. 이에 반해 가난한 천민들의 특성은 자신들보다 잘 사는 자들에 대한 원한과 증오이며 자신들이야말로 가장 의롭고 선한 자들이라고 생각하는 위선이다.

사실상 우리에게는 니체가 지적하는 천민 근성이 뿌리 깊게 존재한다. 우리에게는 사회적으로 성공했거나 부자가 되면 자신의 성공이나 부를 과시하면서 남들 앞에서 위세를 떨고 싶은 성향이 존재한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실패했거나 가난하게 되면 자신이 이렇게 된 것은 정직하고 선한 자신이 영악한 자들에게 당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을 미화하고 싶어하는 성향이 존재한다. 이러한 천민 근성은 사실 뿌리 뽑기 어려운 것이며 알게 모르게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규정한다.

니체는 이러한 천민에 대립하는 인간을 초인이라고 부르지만, 고귀한 인간이라고도 부른다. 고귀한 인간이란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할 줄 알고 탐욕의 노예가 되지 않는 자다. 그는 또한 자신들보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자

— [www.kci.go.kr](http://www.kci.go.kr)

14 니체(2000), p. 435(번역을 약간 수정했음).

들에 대해서 원한과 증오를 품기보다는 그들이 남다른 장점이 있으면 흔쾌히 인정하고 그것을 배우려고 하고 그들과 공정하게 경쟁하는 자다. 니체는 우리가 천민 근성을 극복하고 고귀한 인간이 될 것을 촉구한다.

#### 4.1. 고귀한 인간이 갖는 특성들

니체가 말하는 고귀한 인간이 갖는 특성들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 4.1.1. 자신의 운명을 긍정한다.

고귀한 인간은 자신의 운명을 긍정한다. 이 경우 운명을 긍정한다는 것은 단순히 운명을 체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다. 운명을 체념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한(恨)을 갖고 있지만 어쩔 수 없으니 받아들인다는 식의 수동적인 자세에 불과하다. 운명을 참으로 긍정하는 자는 ‘우리를 죽이지 않는 것은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부딪힌 불행이나 고통을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발판으로 삼는 자다.<sup>15</sup> 이런 의미에서 운명을 긍정하는 자는 운명을 전적으로 전환하는 자

15 니체는 인간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고통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쾌락주의든 염세주의든 공리주의든 행복주의든 간에 이 모든 사고방식은 부수적이고 부차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 **쾌감과 고통**을 기준으로 하여 사물의 가치를 측정한다. 그러한 사고방식들은 모두 피상적이고 순진한 사고방식이며, **창조력**과 예술가적 양심을 자각하는 사람이라면 그러한 사고방식에 조소와 연민을 느끼면서 그것을 경멸하지 않을 수 없다. [...] 그대들은 가능하다면—이보다 더 어리석은 ‘가능하다면’도 없을 것이다—**고통을 없애려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는 오히려 일찍이 없었던 정도로 고통을 증대시키고 악화시키려고 하는 것 같다! 그대들이 생각하는 안락과 같은 것은 우리의 목표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는 종말로 보인다! 그것은 인간을 우습고 경멸받아 마땅한 것으로 만드는 상태이며, 자신의 몰락을 **원하게** 만드는 것이다! 고통을 견디는 훈련, **거대한 고통을 견디는 훈련**, 그대들은 **이러한** 훈련만이 지금까지 인류의 모든 교양을 가능하게 했다는 사실을 아는가?” 니체(2018), 박찬국 옮김, 『선악의 저편』 225절, 아카넷, p. 282 이하.

라고 할 수 있다. 운명을 긍정하는 자의 예로 우리는 니체 자신을 들 수 있다. 니체는 대학 교수 시절 병고에 시달렸지만, 이러한 병고 덕분에 자신이 고전문헌학 교수직에서 사퇴하고 철학의 길에 본격적으로 접어들 수 있었다고 말하면서 자신이 부딪힌 병고라는 운명을 긍정한다.

자신의 운명을 긍정하는 자는 세계를 긍정하는 자이기도 하다. 이는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태어난 가정환경이나 사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사건들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운명을 긍정하는 자는 어떠한 환경에서든 그리고 어떠한 불운을 맞아도 염세주의나 현실도피에 빠지지 않고, 이 세계를 긍정하면서 밝게 살아간다.

#### 4.1.2. 강하다.

고귀한 인간은 강한 인간이다. 그런데 니체가 말하는 강함은 요새 문제 되는 학교폭력에서 보듯 자신보다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직장에서 자신보다 불리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갑질을 하는 것이 아니다. 니체가 말하는 강함은 흔히 그렇게 오해되었다. 이에 따라 니체는 마르크스주의자들 사이에서는 노동자들에 대한 자본가들의 착취와 약소국에 대한 강대국의 제국주의적인 지배를 정당화하는 반동 철학자로 간주되었다. 과연 니체의 철학이 그와 같은 것이라면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니체의 철학은 마땅히 폐기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니체는 우리 인간에게는 자신의 강한 힘과 우월함을 느끼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다고 보았고 그러한 욕망을 힘에의 의지라고 불렀다. 힘에의 의지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지만, 크게 다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힘에의 의지는 첫째로 비열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이는 사회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자가 그렇지 않은 자에게 갑질을 하면서 자신의 강함과 우월함을 느끼는 방식이다. 이런 자는 자신이 사회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게 된 것은 자신이 잘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신보다 불리한 지위에 있는 자들을 무시한다. 이들이 자신들보다 약한 자들에게 주로 내뱉는

말들은 희롱이나 욕설이다. 힘에의 의지를 이런 식으로 발현하는 자들이 사회의 주도권을 잡으면 그 사회는 약자들에게 무자비한 비정한 사회가 된다.

둘째로 힘에의 의지는 위선적인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이는 사회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거나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이들을 이용하여 권력을 잡으려는 자들이 자신들의 우월함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이들은 자신들을 선하고 의로운 자들이라고 자처하면서, 자신들이 실패한 것은 잘못된 사회 구조나 부도덕한 남들 때문이라고 생각한다.<sup>16</sup> 이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한 자들에 대해서 내뱉는 말들은 주로 험담이다. 이들은 자신들보다 성공한 자들의 추문을 열심히 추적한다. 힘에의 의지가 발현되는 이러한 방식이 사회를 지배하게 되면 그 사회는 발전할 수 없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자들이 범죄자로 취급받는 상황에서는 누구도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거나 열심히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힘에의 의지가 발현되는 비열한 방식과 위선적인 방식은 앞에서 언급했던 천민들이 힘에의 의지를 충족시키는 방식이다. 이 두 개의 방식이 갖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사람들이 그러한 방식들을 통해서서는 성장할 수 없다는 점이다. 자신보다 약한 자들만 괴롭히는 방식으로 자신의 우월함을 느끼는 자도, 자신은 이미 선하고 정의로운 자라고 생각하면서 우월함을 느끼는 자도 정신적으로 성장할 수 없다.

힘에의 의지가 발현되는 위의 두 가지 방식들에 반해, 니체는 힘에의 의지가 발현되는 우아하고 고귀한 방식이 있다고 본다. 이는 다른 사람들과 경쟁을 하더라도 최소한 자신과 대등하거나 이왕이면 자신보다 우월해 보이는 상대와 경쟁을 하는 방식이다.<sup>17</sup> 이런 식으로 힘에의 의지를 발현하는 자는 자신과 경쟁하는 상대를 자신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도움을 주

16 니체(2021), 박찬국 옮김, 『도덕의 계보』, 아카넷, p. 49 이하 참조. 니체는 여기서 ‘도덕에서의 노예반란’이라는 주제로 이러한 현상을 다루고 있다.

17 니체(2022), 박찬국 옮김, 『이 사람을 보라』 「나는 왜 이렇게 현명인가」 7절, 아카넷, p. 54.

는 고마운 자로 생각한다. 그는 설령 자신이 패배하더라도 상대방이 악하고 자신은 선하기 때문에 패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부족해서 패배했다고 생각한다. 또한 그는 자신이 승리했다라도 자신에게 성장의 기회를 준 상대방에게 감사한다. 이런 사람은 자신보다 약하거나 불리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항상 겸손하다. 이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너무 쉽게 자신의 강함과 우월함을 느끼려고 하는 비열한 근성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4.1.3.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에 대해 긍지를 갖는다.

고귀한 인간은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에 대해 긍지를 갖는다. 그는 자신이 고귀하고 탁월한 가치를 갖는 인간이라고 생각하며 사실 그렇게 고귀한 가치를 갖고 있다. 그는 다른 사람들도 능히 할 수 있는 일에는 나서지 않으며,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자신의 능력을 절실히 필요로 할 경우에만 나선다.

그는 사회적으로 아무리 높이 인정받는 상이나 명예라도 자신이 높이 평가하거나 존경하는 사람이 주는 상이나 명예가 아니면 무시해 버린다. 그는 사회나 대중의 인기에도 연연해하지 않으며 그것들을 중시하지도 않는다. 심지어 그는 상이나 명예를 받을 때도, 그것으로 자신의 영예가 올라갔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에게 상이나 명예를 준 사람의 영예가 올라갔다고 생각한다. 이는 그가 그 사람이 자신에게 상이나 명예를 줘도 좋다고 생각할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귀한 인간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것 중의 하나가 허영심으로 차 있는 자다. 허영심에 가득 찬 인간은 좋은 평판을 들을 만한 자격이 없으면서도 자신에 대해 좋은 평판을 억지로 만들어내려 한다. 그리고 급기야는 자신이 만들어낸 이런 좋은 평판을 믿어버린다. 허영심에 사로잡힌 인간은 자신에 대한 모든 좋은 평판에는 기뻐하고, 나쁜 평판에는 괴로워한다.

니체는 이러한 허영심은 일종의 노예근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본다. 옛날의 노예는 자신에 대해서 주체적으로 평가할 줄 모르고, 주인의 평가에 예속되어 있었다. 노예는 주인이 자신에게 좋은 평가를 하면 기뻐하고, 나쁜 평가를 하면 의기소침해했다. 허영심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이 자신에 대해 좋은 평가를 하도록 다른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은 그의 핏속에 남아 있는 ‘노예’다.<sup>18</sup>

#### 4.1.4. 아낌없이 베푼다.

고귀한 인간은 베풀어야 할 때는 아낌없이 베푼다. 그는 이미 풍요로운 자여서 베풀어도 아깝다는 의식 없이 선사한다. 그는 누군가가 그에게 고마워하기를 바라지 않고 보답도 바라지 않는다.<sup>19</sup>

#### 4.1.5. 자신을 통제할 줄 안다.

고귀한 인간은 스스로를 통제할 줄 아는 자다. 그는 항상 강한 육체적인 힘을 소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을 유지할 수 있다. 다른 모든 사람이 피곤함 등의 이유로 흐트러진 자세를 취해도, 그는 항상 꼳꼳한 자세를 취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는 곤경에 처해서도 쾌활함과 친절함을 항상 유지함으로써 자신의 정신이 어떠한 위험과 기습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인상을 준다. 그는 자신을 비난하거나 도발하는 말에 대해서도 침착하고 유쾌하게 대응한다.<sup>20</sup>

#### 4.1.6. 독단적인 확신에서 벗어나 유연하고 자유로운 정신을 갖고 있다.

고귀한 인간은 자유로운 정신의 소유자다. 자유로운 정신은 어떤 독단적인 종교나 철학에 사로잡히지 않고 사태를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는

18 니체(2018), p. 368.

19 니체(2000),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서설 4절, p. 21 참조.

20 니체(2004), 박찬국 옮김, 『아침놀이』 201절, 아카넷, p. 217 이하 참조.

정신이다. 고귀한 인간이 이렇게 자유로운 관점을 취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참으로 강하고 자신을 신뢰하는 인간이기 때문이다.<sup>21</sup>

우리는 흔히 어떤 독단적인 신념을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강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들은 자신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자다. 그는 자신이 삶에서 느끼는 불안을 독단적인 신념에 매달리는 방식으로 극복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는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는 약한 인간이기에 독자적으로 사유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독단적인 신념의 틀 안에서 본다. 이에 반해 자유로운 정신의 소유자는 그 어떤 독단적인 신념에도 사로잡히지 않고 다양한 관점에서 사태를 고찰할 수 있는 여유와 자신감을 갖고 있다.

니체는 인류 역사상 가장 해로운 자들은 ‘자신들이야말로 가장 선하고 의롭다’라고 자처하는 독선에 사로잡힌 자들이라고 말한다.<sup>22</sup> 사실 이자들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살해했다. 서양 중세에 수많은 사람을 마녀로 몰아 화형에 처한 자들은 자신들이야말로 신의 뜻을 가장 잘 아는 선하고 의로운 자들이라고 생각했던 광신적인 가톨릭교도들이었다. 20세기에 들어서는 나치즘이나 마르크스주의와 같은 광신적인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자들이 자신들의 이념에 반하는 자들을 악의 무리로 단죄하면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학살했다.

극악한 연쇄 살인범이 100명을 죽일 때 이들은 수백만을 학살했다. 또한 모든 독재자는 자신이야말로 가장 선하고 의로운 자라고 국민을 세뇌하

21 니체는 『즐거운 학문』 제5부 347절에서 이렇게 말한다.

“한 인간이 번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하나의 **신앙**을 필요로 하는지, 흔들리지 않기 위해 그가 확고한 것에 얼마나 많이 의지하는지가 그의 힘(또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의 약함)을 나타내는 지표다. [...] 반대로 모든 신앙과 확실성을 향한 모든 소망에 작별을 고하고, 가벼운 batzuel과 가능성을 붙잡고 심지어 심연 위에서 춤을 출 수 있도록 훈련된 자기 결정의 욕구와 힘, 의지의 자유를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정신이야말로 최고의 **자유로운 정신**이다.” Nietzsche Werke, Kritische Gesamtausgabe V-2, *Die Fröhliche Wissenschaft*, (Hg.) G. Colli & M. Montinari (Walter de Gruyter, Berlin/New York, 1973), p. 261.

22 니체(2000), p. 345 참조.

고 그들을 비판하는 자들은 처형한다. 니체는 보통 악한 자들로 간주되는 자보다 자신이야말로 가장 선하고 의로운 자라고 생각하는 독단적인 확신에 사로잡힌 자가 더 위험하다고 보았다. 이는 거짓말을 하는 자는 자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독단적인 확신에 가득 찬 자는 자신이 터무니없는 독단적인 확신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는커녕 오히려 그러한 확신을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주입하려고 한다.

우리는 위에서 초인, 즉 고귀한 인간이 갖는 특성들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우리 안의 천민 근성을 극복하고 이러한 특성들을 온전히 실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 때문에 니체도 지금까지 초인은 하나도 없었다고 말한다. 아무리 훌륭한 인간에게도 역겨운 점이 항상 남아 있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니체는 우리가 초인, 즉 고귀한 인간이라는 이상을 향해 끊임 없이 자신을 초극해야 한다고 말한다.<sup>23</sup>

#### 4.2. 덕 윤리가로서의 니체<sup>24</sup>

니체는 이상에서 우리가 살펴본 고귀한 인간의 특성들을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귀족들이 추구했던 덕들이라고 본다. 니체는 이러한 덕들이 망각되고 기독교가 서양을 지배하면서 서양인들이 약해졌다고 본다.<sup>25</sup>

니체를 이러한 귀족적인 덕들의 회복을 주창하는 덕 윤리가로 보는 대

23 니체(2000), p. 333 참조.

24 이 부분은 본인의 책 『니체를 읽는다: 막스 셸러에서 들뢰즈까지』(아카넷, 2015)의 일부 내용(pp. 251-255)을 참조했다.

25 니체가 주창하는 덕은 겸손이나 친절함, 동정과 같은 기독교나 민주주의가 주창하는 덕들이 아니라 원래 전사 계급이었던 그리스·로마의 귀족들이 지향하던 덕이다. 이러한 덕들로 니체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든다.

“금지, 거리를 두는 파토스, 큰 책임, 원기 발랄함, 멋진 야수성, 호전적이고 정복적 본능, 열정과 복수와 책략과 분노와 관능적 쾌락과 모험과 인식의 신격화” 니체(2004), 백승영 옮김, 『유고 1887년 가을-1888년 3월』, 니체 전집 20권, 책세상, p. 481.

표적인 니체 해석가들은 로버트 솔로몬(Robert Solomon)과 토마스 브로비에 다.<sup>26</sup> 솔로몬은 니체가 말하는 ‘새로운 가치의 창조’는 실은 그리스도교가 지배해 온 이래 서양에서 오랫동안 무시되고 망각되어 온 고대의 귀족적 덕들로의 회귀와 같은 것이라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솔로몬은 니체의 철학을 고대의 아리스토텔레스와 근대의 대표적인 도덕 철학자 칸트와 대조하면서, 니체 철학과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의 근친성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sup>27</sup>

아리스토텔레스가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주창하는 덕들은 호메로스가 『일리아드』에서 묘사하고 있는 전사의 덕들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용기나 긍지와 같은 것들이 전사의 덕에 속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은 탁월한 소수를 위한 윤리학이다. 따라서 그것은 칸트가 말하는 것과 같은

26 다음 논문들을 참조하기 바란다. Robert C. Solomon (1998), “A More Severe Morality: Nietzsche’s Affirmative Ethics”, *Nietzsche: critical assessments III* (Ed. by Daniel, W. Conway), New York; Thomas H. Brobjer (2003), “Nietzsche’s Affirmative Morality: An Ethics of Virtue”, *Journal of Nietzsche Studies*, No. 26. 솔로몬과 브로비에 외에 짐멜도 니체가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것은 귀족적인 덕들과 고귀함의 회복이라고 본다. Georg Simmel (1998), “The Morality of Nobility”, *Nietzsche: critical assessments III* (ed. by Daniel, W. Conway), New York.

이러한 연구자들에 반해 제시카 베리는 니체를 덕 윤리가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니체가 덕의 본질이나 유덕한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에 대해서 상세한 논의를 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그녀는 니체 철학의 의의는 그가 어떤 특정한 윤리 사상을 제기했다는 점보다는 도덕 일반에 대해서 도발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찾아야 한다고 본다. Jessica N. Berry (2015), “Is Nietzsche a Virtue Theorist?”, *The Journal of Value Inquiry*, Springer Netherlands, Vol. 49(3).

본인은 물론이고 니체를 덕 윤리가로 보는 연구자들도 니체가 덕의 본질이나 유덕한 인간의 특성에 대해서 상세하고 체계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인정할 것이다. 그러나 니체는 공리주의나 칸트의 윤리학을 분명히 비판하고 있다. 니체가 명시하지 않아도 이러한 비판에는 준거점이 되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준거점은 덕 윤리라고 할 수 있다. 니체가 덕 윤리에 대해서 상세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더라도, 우리는 그의 글들 도처에서 그를 덕 윤리가로 보는 해석을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27 Robert C. Solomon (1998), p. 326 이하 참조.

보편적인 도덕법칙이나 정언명법과 같은 것과 무관하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은 칸트의 윤리학처럼 보편적 도덕원리를 정당화하는 윤리학이 아니라 당시의 아테네에서 실제로 행해지고 있던 에토스(ethos)<sup>28</sup>에 대한 기술이다. 이러한 에토스는 당시의 귀족주의적 문화와 분리될 수 없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에서는 탁월함이 큰 중요성을 갖는다.

반면 칸트는 아리스토텔레스와 전적으로 다른 전통, 즉 기독교 전통에 속한다. 칸트의 윤리학도 그리스도교도 모든 영혼은 평등하다고 본다. 칸트의 윤리학은 인간들 사이의 차이를 논외로 하면서 인간 모두가 인간성이라는 공통의 성질과 도덕적 이성을 공유하고 있다고 가정하는 윤리학이다. 이런 의미에서 솔로몬은 ‘아리스토텔레스와 아킬레스’ 대(對) ‘칸트와 그리스도교’라는 대조를 염두에 둘 때 우리는 니체의 문제의식과 목표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한다.

이에 반해 『덕을 찾아서』(After Virtue)에서 맥킨타이어(Alasdair MacIntyre)는 아리스토텔레스와 니체를 서로 대립적인 사상가로 보고 있다.<sup>29</sup> 그는 니체를 철저하게 파괴적이고 허무주의적인 철학자로 보면서 아리스토텔레스를 그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니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리스토텔레스가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묘사하고 있는 고귀한 귀족적 전통으로 되돌아간다.

니체가 말하는 초인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공지에 찬 영혼’(megalopsychos)<sup>30</sup>과 극히 유사하다. 니체와 아리스토텔레스가 평등주의적 윤리학을 거부하고 엘리트주의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비도덕주의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또한 모든 도덕법칙을 부정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아리스토텔레스와 니체의 윤리학은 사람들의 재능과 능력

28 에토스는 관습, 성격을 의미하는 그리스어다.

29 Alasdair MacIntyre (1985), *After Virtue: a study in moral theory*, second edition, Duckworth, p. 117 참조.

30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윤리학』, 1123b-5a.

이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갖는다. 이들의 윤리학은 탁월한 소수로 하여금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실현하도록 독려하는 것을 목표로한다. 이런 의미에서 니체의 윤리학은 아리스토텔레스적인 덕의 윤리로서, 의무나 보편적 사랑과 같은 추상적 원리가 아니라 각 개인의 고귀한 품성이 결정적 의미를 갖는 윤리학이다.

솔로몬과 마찬가지로 브로비어도 니체가 공리주의와 의무주의를 비판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덕의 윤리를 주창했다고 본다.<sup>31</sup> 니체가 공리주의를 비판하는 것은 어떤 행위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히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의무주의를 비판하는 것은 우리 행위의 실제적인 동기는 우리가 의식하는 동기와는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순수한 도덕적인 동기에서 행한다고 생각하더라도, 그 행위의 이면에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비도덕적인 동기가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리주의와 의무주의가 어떤 행위가 갖는 성격을 문제 삼는 반면에, 니체는 어떤 행위가 건강하고 고귀한 성품에서 비롯된 것인가 아니면 병적이고 천박한 성품에서 비롯된 것인가를 문제 삼았다는 것이다. 덕의 윤리에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도덕적으로 옳지 않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것이 우리의 고귀한 성품에 어울리지 않으며 우리의 자존감을 훼손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sup>32</sup>

## 5. 나가면서

니체는 선과 악이라는 대립 구도를 갖는 전통적인 가치관 대신에 강함과 약함이라는 대립 구도를 갖는 새로운 가치관을 내세운다. 기독교가 서양

31 Thomas H. Brobjer (2003), p. 64 참조.

32 Thomas H. Brobjer (2003), p. 72 참조.

을 지배하게 된 이래 거의 모든 철학자가 선하고 착한 인간이 되라고 외치는 반면에, 니체는 강한 인간이 되라고 외치는 것이다. 바로 이 점에서 니체야말로 서양철학의 진정한 이단이라고 할 수 있다. 하이데거든 아도르노든 들뢰즈든 레비나스든 자신들은 전통 철학 전체를 부정하면서 새로운 철학을 건립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들은 니체가 사회주의자들과 무정부주의자들에 대해서 말했듯이 기독교의 그늘 아래에 있다.

그런데 니체가 말하는 강한 자란 단순히 권력을 쥔 자들이 아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자신들보다 약하고 불리한 위치에 있는 자들에 군림하는 강함을 니체는 강함이라고 부르지 않고 비겁함이라고 부른다. 그들은 만만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방식으로 우월감을 느끼려고 하는 비열한 자들이다. 따라서 니체가 말하는 강한 자는 권력을 갖는 자들이 아니다. 니체는 오히려 비열하고 위선적인 자들이 권력을 쥔 경우가 많다고 본다.

이들 중 니체가 특히 경멸하고 경계하는 자들은 첫째로 자신들을 신을 대리하는 선한 자들로 자처하면서 자신들의 교리와 조직에 복종하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진다고 대중을 협박하는 기독교 성직자들이다. 그리고 둘째로 정의와 평등을 내세우지만 사실은 사회적으로 성공한 자들에 대한 대중들의 원한과 시기심에 호소하면서 대중을 선동하여 권력을 잡고 새로운 지배 계급으로 군림하는 사회주의자들이다. 니체에 따르면, 이들은 선과 정의의 사도로 자처하면서 자신들의 적을 사탄의 무리나 악의 무리로 간주하지만 사실은 권력욕에 불타는 위선적인 자들이다.

니체가 생각하는 진정으로 강한 자들은 자신보다 동등하거나 이왕이면 자신보다 더 강한 자들과 겨루려는 자들이고, 자신들의 적이 훌륭한 적수라면 기꺼이 존경을 표할 줄 아는 자들이다. 또한 그들은 무엇보다도 자신에 대해서 엄격한 자들이고 고난이나 고통을 자신의 성장과 발전의 계기로 삼을 수 있는 자들이다. 따라서 진정으로 강한 자들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경쟁과 고통 그리고 고난이 사라지지 않는 이 세계를 그대로 긍정하면서 이 세계에서 춤추듯 유희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다. 진정으로 강한 자

들은 기독교가 그리는 천국이나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말하는 공산주의 사회처럼 경쟁이나 고통 그리고 고난이 사라진 세계를 꿈꾸지 않는다. 그들은 이러한 세계는 허약하고 지친 자들이 만들어낸 신기루에 불과하다고 본다.

이런 맥락에서 나는 최근에 각광받는 니체 해석의 세 가지 방향 중 니체의 사상에 가장 부합되는 해석은 니체의 사상을 덕 윤리로 보는 해석이라고 생각한다. 고귀한 인간을 육성한다는 니체의 목표는 첫 번째 저작인 『비극의 탄생』에서부터 마지막 저작인 『안티크리스트』까지 일관되게 나타나 있다. 니체는 『도덕의 계보』에서는 고귀한 인간을 주권자로서의 개인이라고도 부른다.

주권자로서의 개인은 오직 자신에게만 충실하며, 관습의 도덕에서 다시금 벗어난 개인이고, 자율적이고 초윤리적인 개인(왜냐하면 ‘자율적’과 ‘윤리적’은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요컨대 자신만의 독립적이고 끈질긴 의지를 지닌 인간,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인간이다. [...] 진정으로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이 해방된 인간, 자유로운 의지의 소유자, 이 주권자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서 자신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없는 모든 자보다 자신이 얼마나 탁월한 자인지,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신뢰와 공포와 경외(그는 이 세 가지 모두를 받을 만하다)를 불러일으키는지를 어찌 모르겠는가? [...] 그는 필연적으로 자신과 동등한 자들, 강한 자들, 신뢰할 수 있는 자들을(약속을 지킬 수 있는 자들을) 존경한다. 즉 주권자처럼 진중하고 드물게 그리고 오랜 숙고 끝에 약속하는 자, 쉽사리 타인을 신뢰하지 않으며 자신이 어떤 사람을 신뢰할 때 그러한 신뢰에 의해 신뢰받는 자에게 영예를 부여하는 자, 자신의 약속을 고초를 겪으면서도 심지어는 ‘운명에 저항하면서’까지도 지킬 정도로 자신이 충분히 강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약속을 하는 자, 이러한 모든 자를 존경한다.<sup>33</sup>

## 참고문헌

- 알렉산더 네하마스(2013), 김종갑 옮김, 『문학으로서의 삶』, 연암서가.
- 박찬국(2005), 「들뢰즈와 푸코의 니체 수용에 대한 비판적인 분석」, 『인문논총』 54집, pp. 357-367.
- 박찬국(2015), 『니체를 읽는다: 막스 쉐러에서 들뢰즈까지』, 아카넷.
- 박찬국(2016), 『니체와 하이데거』, 그린비.
- 프리드리히 니체(2000), 정동호 옮김,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책세상.
- 프리드리히 니체(2004), 박찬국 옮김, 『아침놀』, 아카넷.
- 프리드리히 니체(2004), 백승영 옮김, 『유고 1887년 가을 - 1888년 3월』, 니체 전집 20권, 책세상.
- 프리드리히 니체(2013), 박찬국 옮김, 『안티크리스트』, 아카넷.
- 프리드리히 니체(2018), 박찬국 옮김, 『선악의 저편』, 아카넷.
- 프리드리히 니체(2021), 박찬국 옮김, 『도덕의 계보』, 아카넷.
- 프리드리히 니체(2022), 박찬국 옮김, 『이 사람을 보라』, 아카넷.
- Nietzsche, Friedrich (1973), *Nietzsche Werke, Kritische Gesamtausgabe V-2, Die Fröhliche Wissenschaft*, (Hg.) G. Colli & M. Montinari, Walter de Gruyter, Berlin/New York.
- Berry, Jessica N. (2015), "Is Nietzsche a Virtue Theorist?", *The Journal of Value Inquiry*, Vol. 49(3), pp. 369-386.
- Brobjer, Thomas H. (2003), "Nietzsche's Affirmative Morality: An Ethics of Virtue", *Journal of Nietzsche Studies*, No. 26, pp. 64-78
- Dombowsky, Don (2018), "The Last Metaphysician': Heidegger on Nietzsche's Politics", *The European Legacy*, 23:6, pp. 628-642.
- Heidegger, Martin (1972), *Sein und Zeit*, Tübingen, 12판.  
전집 7권 *Vorträge und Aufsätze*, Vittorio Klostermann, 1978(4판).  
『니체 II』, 박찬국 옮김, 길출판사, 2012.
- Macintyre, Alasair (1985), *After Virtue: a study in moral theory*, 2nd edition, Duckworth.
- Rehmann, Jan (2004), *Postmoderner Links-Nietzscheanismus - Deleuze & Foucault - Eine Dekonstruktion*, Argument Verlag.
- Simmel, Georg (1998), "The Morality of Nobility", *Nietzsche: critical assessments III* (Ed. by Daniel, W. Conway), New York.
- Solomon, Robert C. (1998), "A More Severe Morality: Nietzsche's Affirmative Ethics", *Nietzsche: critical assessments III* (Ed. by Daniel, W. Conway), New York.

## ABSTRACT

# Three Ways of Interpreting Nietzsche

Park, Chankook\*

Postmodern Leftist Reading,  
Heideggerian Reading, and  
Virtue Ethics Reading

There are so many different interpretations of Nietzsche, from the far left to the far right, from androcentric to feminist, that there are all sorts of interpretations of Nietzsche, some of which even contradict each other. But I believe that any creative interpretation of Nietzsche should at least smell like Nietzsche, to the point where it can be thought of as interpretation about Nietzsche. Like Nietzsche, I believe that Christian values have dominated Western philosophy since Christianity came to dominate, values that assert the dignity and equality of all human beings. Nietzsche, on the other hand, believes that all human beings are not dignified and equal, but that there are grades among human beings and that a hierarchy should govern according to these grades. In other words, there are noble humans and lowly humans, and noble humans should rule society. Nietzsche also believes that the essence of human beings is the will to power, so conflicts and struggles over power cannot disappear in human society. Interpretations that de-emphasize these two basic ideas — the recognition of grades among human beings and

---

\* Professor, Department of Philosophy,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view of human nature as the will to power — are interpretations that remove the distinctive character of Nietzsche's thoughts. Even if we interpret Nietzsche creatively, it is necessary to interpret him so that he at least smells like Nietzsche.

From this position, this paper examines three ways of interpretation of Nietzsche that have gained traction in recent years: the postmodern leftist, Heidegger's interpretation, and the interpretation of Nietzsche as a virtue ethicist. It exposes the problems with the postmodern left and Heideggerian interpretations and shows that the virtue ethicist reading of Nietzsche is the most appropriate reading of Nietzsche. This paper reviews three ways of interpreting Nietzsche that have recently gained prominence: postmodern leftist reading, Heideggerian reading, and virtue ethics reading. It exposes the problems with the postmodern left and Heideggerian interpretations and shows the validity of the virtue ethicist reading of Nietzsche.

**Keywords** Nietzsche, Postmodern Left, Heidegger, Virtue Ethics

